

Youth #8

CICA Museum

February 2 - 20, 2022

2022.02.02 - 02.20

Featured Artists 참여작가: **Ahn Yaejin (안예진), Piper Bangs, Summer Brooks, Jung A Lee (이정아), Kang Hyeji (강혜지), Kang Chaeyeon (강채연), Joanna Kaźmierska, Kim SoWon (김소원), Mathilde Lâ, moonie (무니), Tara Mukund, Sunyoung Park (박선영), Junyeol Ryu (류준열), Yehun Shin (신예훈), Song Chang Hoon (송창훈), Kichan Yang (양기찬)**

1. Ahn Yaejin (안예진)

“분노하는얼굴들(예진)” (2021)

“분노하는얼굴들(민영)” (2021)

“분노하는얼굴들(보물)” (2021)

“분노하는얼굴들(치피)” (2021)

“분노하는얼굴들(서한)” (2021)

<분노하는 얼굴들>은 타인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애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작업에 참여할 모델은 어플 ‘틴더(Tinder)’를 통해 구인했으며, 모두 20대입니다. 작가는 각각의 일반인 모델과 첫 대면 후 1:1로 마주앉아 서로를 번갈아 촬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자가 저마다의 이유로 분노했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 촬영에 임했으며, 그들이 말한 분노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 전시에는 그 중 작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 자신에 대한 분노
-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분노
- 가난에 대한 분노
- 배신을 당했을 때 느낀 분노
- 자해를 했을 때 느낀 분노
- 한국의 뷰티 스탠다드 때문에 차별받았을 때의 분노
- 어린 시절에 대한 분노
- 아버지에게 맞았을 때 느낀 분노
- 여성으로서 차별받았을 때 느낀 분노
- 타지에서 이방인으로서 차별받았을 때 느낀 분노
-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느낀 분노
- 성폭행을 당했을 때 느낀 분노
-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

인간의 감정과 역학 관계를 사진에 옮겨 담고 싶은 작가 안예진입니다. 일반인들에게 퍼포먼스를 수행하도록 한 후 이것을 촬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특정한 제약을 주고 그 외에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퍼포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수행합니다. 매 순간 촬영을 하며 모든 것을 아는 연출자이자 모든 것을 모르는 관객이 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99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와 정보문화학과를 전공했습니다.

2. Piper Bangs

“La Nouvelle Bacchante”(2020)

In this work, I subvert the European painting trope of the bacchante, or a priestess of Bacchus often depicted in a de-personalizing, flirtatious, and promiscuous manner often meant to please the gaze of an audience, by transforming it into and replacing it with a symbol of feminine empowerment. I aim to accomplish this by painting the central figure of this work in a powerful stance looking downwards at the viewer, as if we are now asked, in our contemporary context, to revere her.

Piper Bangs is a representational oil painter and BFA student from the United States currently studying Painting and Drawing at Laguna College of Art and Design in Laguna Beach, California. She has exhibited her work internationally in venues such as the Pratt Manhattan Gallery in New York Cit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 Washington, D.C., the National YoungArts Foundation in Miami, FL, and Galería L86 in Baja California, Mexico. Her work was recently published in Artist's Voice of Artists 14th issue.

3. Summer Brooks

“Ambrosia”(2020)

Ambrosia magically binds its plush inhabitants in a pinkish white slurry of spray foam. It seems as if the plush toys were lured in by its mystical colors and undulating blobs. The odd form pays homage to my love for fungi with its sickly sweet appearance inspired by the *Hydnellum peckii*, or bleeding tooth Fungus.

Summer Brooks was born on a military base in Okinawa, Japan and currently resides in Kansas City, Missouri. Recently, she graduated from McKendree University earning her Bachelor of Art degree. Brooks currently is an awardee of NCECA's Multicultural fellowship. Her work has also won 'Best in Undergraduate' at Good Shepherd Arts Center. Brooks showed work at Art Saint Louis in the exhibit Varsity XXV and Albrecht-Kemper Museum of Art's Undergraduate Juried Exhibition.

4. Jung A Lee (이정아)

“Fragile identities”(2021)

“No Title”(2021)

“No Title”(2021)

“Planned Happendstage”(2021)

‘계획된 우연’이라는 개념에 왠지 모르게 끌렸다. 모순적인 말이다. 작년 한 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말이 내게 유의미하게 다가왔다. 작년 여름에 나는 사람들을 피해 산과 바다 근처에서 지냈었다. 풍경을 캔버스에 옮기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나를 보여준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고요와 편안함을 찾을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도 변화무쌍한 형태들이 눈 앞에 아른 거린다. 아마도 나는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케도를 이탈하는 자는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날아오를 것인가? 나무와 바위는 거기 그대로 몇 백년을 있는데 그걸 바라 보는 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작년에 “어른이”라는 말을 들었다. ‘어른이’라는 단어는 어른과 어린이의 합성어이다. 어른이 되다는 것은 상실감을 동반한다. 이 신조어는 내면의 어린이를 상실하기는 싫고 어른은 되어야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다. 예상치 못한 우연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 시기에 찾아왔다. 예술을 한다고 해서 매일 번뜩이는 영감이 찾아오지 않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작업한다. 그럴기에 그저 그런 날 그런 그림도 가끔씩 꺼내서 다시 그린다. 전에 그려둔 부분은 새로 그려지는 것의 실마리가 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려진 선 하나에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한다.

Somehow I was attracted toward the concept "a planned coincidence", which is a contradiction. An incident that happened by chance caused a tremendous impact on everyday life, which approached me meaningfully. Last year I stayed near mountains and seas, evading from contacts. The work of transplanting landscapes into canvases shows me in some part. I thought I could find peace from nature's tranquillity, but now its kaleidoscope glimmers before my eyes. Perhaps I love incompleteness.

Will he or she who slips out of an orbit collapse down to the nadir or soar up high? For hundreds of years trees and rocks stay where they are, but I, who observe them, have no idea of what will happen at the very next moment. I just see lines in constant ups and downs. Last year I heard of the word "childult". This word is a combination of adults and children. Being of age accompanies a sense of loss. The word eloquently expresses the state of a mind in the boundary where he or she is forced to be an adult despite reluctance to lose an inner child. Unexpected coincidence visits us as today is different from yesterday. Brilliant inspiration come to me not everyday but I hope that today and tomorrow will be different. I take out a canvas that I painted without inspiration, which I retouch. The old painting gives some clue for a renewed painting, and from there, meanings come up.

5. Kang Hyeji (강혜지)

“무애(無涯) (Boundlessness)” (2022)

“무애(無涯) (Boundlessness)” (2022)

강혜지의 ‘3차원 공간 드로잉’은 과거 회화를 전공했던 영향으로 인해 탄생한 작업이다. 종이나 캔버스에만 그렸던 그녀의 드로잉을 평면적 화면으로부터 벗어나 공간으로 직접 꺼내어 확장시켜나간다. 선, 면, 원근법, 채도 등의 회화적인 요소에 적합한 입체성을 부여하는 과정 속에서는 굵기가 저마다 다른 천사들, 그리고 철망과 천의 겹침효과로 선보인다.

작품에는 곳곳에 드러나 있지 않거나 비어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각도마다 달리 보이는 형상들 또한 이 모든 것으로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시킨다. 관객들은 이 공간에 올라 저마다 다양한 상상력으로 드로잉하며 채우게 된다.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출발하여 관객과의 교감으로 완성되는 작업의 강혜지.

6. Kang Chaeyeon (강채연)

“Olly Olly Oxen Free”(2020)

“가벼운 세계 (A Light World)”(2021)

Olly Olly Oxen Free

우리는 서로를 갈망하고 있다.

계속해서 서로를 모방하고 동경한다.

너는 어디 있니?

못 찾겠다 꼬꼬리.

시간을 멈춰 기원으로 돌아가자.

머릿속을 꾸물꾸물 기어가지만

결국 다시 지겨운 내 방이다.

이 행위의 명칭은 <스스로 숨박꼭질하기>

귀에 맴도는 선율은 천베르크의 <달에 흠린 피에로>다.

너도 고뇌하고 있니?

내 몸을 감싸는 물. 먹먹한 고막. 태초에 편안했던 곳은 이제 숨쉬기 힘들다.

반복을 벗어나려 했으나 또 반복하고 있다.

공간이 일그러진다. 3차원을 벗어나면 이상에 도달하려나?

숲에 도착했다. 자유다. 잡았다.

하지만 이 숲은 죽어있었고 저 멀리 새만 생명력을 가진 소리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다.

가벼운 세계(A Light World)

시간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오래된 인간의 본능이 어떤 풍화작용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쭈글쭈글한 주름과 떨어져 나가는 피부는 본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타인에게는 철저하게 검열한다. 깊이 쌓이는 두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칼로 한 줄 한 줄 떠낸다.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가 되어서야 비로소 놓아준다. 찢든 기름 냄새와 답답한 갈색은 점점 투명해지면서 몸집을 부풀려 하늘로 간다.

표면에 요철이 튀어나오거나 모서리가 있는 것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투명하고 매끈하고 가벼운 것들뿐이다. 스스로가 비닐이 된 이 느낌은 무언가를 축적할 수 없게 만들었다. 흔적이 남거나 숙성되지 않았고, 부식되지 않아서 화석도 될 수 없게 했다. 투명해지는 게 무서워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가벼운 세상 속에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붕 떠오르는 몸을 자꾸만 무겁게 땅에 붙여보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톡'하며 비눗방울이 터졌고 눈을 뜬 순간 그저 까슬까슬한 내 손등과 뽀뽀뽀뽀하게 깎인 손톱의 결이 만져졌다.

‘나를 다른 것에 던지고 그에 의해 또 나를 발견한다. 사물과 나를 혼재하고 착각하는 자화상. 계속해서 내가 바뀌고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이다. 재조합된 가상의 공간 속 침묵하던 **object**는 나에 의해 말해진다. 구술적 오브제는 감각적이고 자율적인 대상으로 존재해 나 대신 이야기를 전달한다. 다른 문맥으로 이동하며 발생할 연출적 상황을 상상해본다. 사물이 배경이 되기도, 풍경이 사물이 되기도 하며, 역할들이 해체된다. 지나간 문장들을 잡아 백과사전적 체계를 이루어 물질성을 부여한 상태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멈춘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기 위해 떠올라있는 상태의 공처럼.’-작가노트 중

강채연(1999)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를 재학 중이며 3d, 회화, 프린팅 등 다매체를 사용하며 디지털 회화와 가상현실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 일상 속 생각들을 다룬다. <개개인전> 한국예술종합학교 복도갤러리, 2019,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가든 서울: 서드라이프의 정원>, Ars electronica 2020 festival, Artcollider(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Today of the past: Share>, 갤러리 초연, 2021 등에서 전시 바 있다.

7. Joanna Kąmierska

“Prussian Nude”(2021)

Prussian nude is merely a symbol of temporary thought. Perception is variable - it can change within moments in the light of events, met people and passed seconds. Its constant development hampers the possibility of capturing thoughts and scenes thoroughly in detail. Intimately portrayed concept addresses

privacy and liberty of one's mind while rough sketches and patches of colour hold a character of notes capturing passing understanding of reality.

Joanna Kaźmierska (b. 2001) is a MFA student i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Fine Arts at the University of Nicolaus Copernicus in Toruń, Poland. Before her studies, she learned painting and drawing under the supervision of Bulgarian artist Ventsislav Piriankov. She has participated in several group exhibitions in Poland.

She views creating as a process of research, and art as a tool to perceive different perspectives. Through her works she attempts to trace how one finds themselves in the context of their surroundings and how the realization of identity processes.

8. Kim SoWon (김소원)

“本. 人. 似. 生(목. 인. 사. 생)2 - *Trees and humans are similar in life*”(2020)

“本. 人. 似. 生(목. 인. 사. 생)3 - *Trees and humans are similar in life*”(2021)

本. 人. 似. 生(목. 인. 사. 생)2 - *Trees and humans are similar in life.*

언젠가 나무가 주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동하여 매일 드로잉 했다. 그렇게 나무를 오래 관찰하다 보니 시간마다 다양한 색채와 분위기를 뽐낸다고 느꼈으며, 그것이 곧 나에게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 인격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후 나무에 시선이 갈 때마다 양팔을 뻗고 있는 사람과 유사해 보이기 시작했고, 흐릿하게 겹치는 두 개의 형상을 접목해 ‘목인’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구성하게 됐다.

나무는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뿌리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줄기를 뿜어 기둥이 되고, 기둥에서 가지로, 그리고 열매들로 이어간다. 인간도 하나의 작은 생명에서 시작해 수많은 가치관과 삶의 방향들이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가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형상뿐만 아니라 삶 또한 유사한 나무와 인간의 생(生)을 목인(木人)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本. 人. 似. 生(목. 인. 사. 생)3 - *Trees and humans are similar in life.*

언젠가 나무가 주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동하여 매일 드로잉 했다. 그렇게 나무를 오래 관찰하다 보니 시간마다 다양한 색채와 분위기를 뽐낸다고 느꼈으며, 그것이 곧 나에게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 인격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후 나무에 시선이 갈 때마다 양팔을 뻗고 있는 사람과 유사해 보이기 시작했고, 흐릿하게 겹치는 두 개의 형상을 접목해 ‘목인’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구성하게 됐다.

나무는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뿌리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줄기를 뿜어 기둥이 되고, 기둥에서 가지로, 그리고 열매들로 이어간다. 인간도 하나의 작은 생명에서 시작해 수많은 가치관과 삶의 방향들이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가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형상뿐만 아니라 삶 또한 유사한 나무와 인간의 생(生)을 목인(木人)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나무와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두 생명체는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자라는데,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자연 또한 작은 생명에서 시작해 성장하며 살아간다. 나무와 사람은 자연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의 작은 존재로 시작해 성장하며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나무와 사람의 형상이 접목된 ‘목인’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을 의미하는 그 밖의 오브제들과 함께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성장하는 삶을 이야기했다.

몇년간 나무와 사람의 유사성에 대해 작업해왔습니다. 나무와 사람은 형상적으로 유사해보여 '목인'(木人)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생각해 '목인'이라는 이미지가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표현했습니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스톱모션기법과 영상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9. Mathilde Lâm

“Bambootears”(2021)

Bambootears is a 60 x 50 cm work that explores the pain and beauty of a woman who does not belong to one culture. Through her unidentifiable appearance this painting expresses the feeling of estrangement. Her vulnerability however counters the sense of exclusion as her tears transform her into a human. Her tears as bamboo symbolize her oneness with nature and thus with her origin and humanity. She is therefore complete and balanced as a middle-ground between east and west.

Mathilde Lâm is a self-taught artist who started painting a little over a year ago. She grew up in a multicultural household with a Belgian mother and a Vietnamese-Chinese father. With her father eventually living in Vietnam and her mother in Belgium she started to question her own identity and heritage, which influences her life and work. Her artistic focus is therefore on finding harmony between east and west, as well as the search for humanization of (Asian) women, who are often stereotyped as weak or hyper sexualized objects. The women she paints are her own subconsciousness as well as every woman that experiences the pressure of today's society that is built on the male gaze.

10. moonie (무니)

“식사”(2021)

“namo”(2021)

“jason”(2021)

“연인” (2021)

“탓” (2022)

식사

한 때, 마음이 너무 아팠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모두에게 기댈 곳이 없던 시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 저에게 ‘충고’ 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 재산, 명예가 충만한 사람이고, 저에게는 정말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초라한 모습을 한 채로 저의 삶이 틀렸다면 충고를 받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과연 제가 틀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일까요?

namo/ jason

제 인생에서 겪어보리라곤 생각하지 못한 것을 최근에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멈춘 듯 팬데믹에 이전 당연하다는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좌절에 빠지기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친구들은 하늘에서 세월을 보내는 직업을 원했지만 이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을 보며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치는 초상화입니다. 친구들의 성격과 걸 모습들을 보았을 때의 느낌을 저만의 색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겉으론 밝아 보이지만 어두운 느낌, 어둡지만 항상 발랄한 친구들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연인

신비로운 숲속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닿을 수 없는 연인의 모습과 ‘과연 아직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려고만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탓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난 항상 준비 되어 있지만 나에게 묶여있는 닳을 항상 탓합니다. 끊어낼 수 도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항상 원망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탓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으며,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화작가 “moonie” 라고 합니다. 저의 작가명은 제가 달을 보며 공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학부생 때 달과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저의 sns계정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림을 봤는데 그때 친해진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애칭으로 불러주었던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애정을 담아서 귀여운 별명으로 불러준다는 게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저의 작가 명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림 소재는 저의 이야기들과 공상을 결합하여 작업을 합니다. 저를 대신 할 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품들과 행동들을 그리는 식으로 하며 색감은 주로 밝은 색을 쓰지만 어두워 보이는 것이 제 그림의 특징입니다. 저는 대부분 저의 그림에 아픔을 그리고 공유하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저랑 같은 또래의 청년들은 공감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기댈 수 있는, 제 그림으로 마음의 안식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약점이 다른 사람들에게겐 장점이 되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그림을 보는 관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그림으로 관객에게 안부를 묻고 저의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은 그림에 대한 감상평 대신 안부에 대한 답을 해주는 소통할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저처럼 말이지요.

11. Tara Mukund

“(x, y, z)”(2021)

“Noise”(2021)

“Paracosmic Mutability”(2021)

(x, y, z)

The title (x, y, z) references coordinates that seemingly take one to a single point on Earth. However, terrestrial coordinates normally correspond to latitudes and longitudes while (x, y, z) is a deceptive reference to the Euclidean plane. This is reflective of the illusory essence of the piece.

(x, y, z) began as simple photos of my everyday life in Seoul - sunsets, trees, books. While rooted in these tangible elements, my piece draws the viewer into a virtual, surreal world, reflecting the in-between condition of humanity. Hints of nature and ecology provide the undertones of this new world, through mountainous forms, growth, water, and erosion. These are jumbled and reassembled using virtual duplication, glitch-like texturing, and other reworking techniques. The various stills of this world demonstrate how our world exists in a very real and yet a very virtual space. (x, y, z) is an exploration of how the virtual blurs our borders, horizons, and realities, and accurately reflects who we are today. We are 'in-between' our past - real, palpable - and our future - incorporeal, ethereal.

Noise

Noise is a manifestation of the haphazard, omnipresent axiom of noise that somehow won't leave your head - muffled but inescapable.

Noise is a response to a personal struggle, epitomizing the universal axiom of noise as well as the constant noise inside my head. The physical act of sculpting and mark making serves, quite ironically, as a break from that noise and the technology that perpetuates it.

The white scape embodies noise in its rawest form; the colorful paint alludes to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noise around us and within me; the sealing plastic parallels the muffling escape from noise that this piece created for me.

Paracosmic Mutability

Paracosmic Mutability is a product of my sustained exploration into technology-driven abstractions of nature. The dazzling, organic, amorphous, extraterrestrial, quasi-familiar forms quite literally 'loop' the viewer in, weaving them into a world of their own subconscious. The world each viewer becomes entrenched in might be ambiguous, personal, mutable, but the interaction between each viewer and the piece remains constant - we are entranced, 'sucked in' by the virtual world, as always.

Tara Mukund is a high school senior and visual artist based in Seoul, South Korea. Her work is focused on technology-driven abstractions of nature, which she renders in varying forms—including sculpture, animation, 3D modelling, and design. She investigates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technology, which she delves into through visual imagery that epitomizes the tales, emotions, and artifacts stemming from hybrids of biospheres and technospheres. Motifs that she is fascinated by—and, by extension, themes central to her work—include noise, built worlds, posthumanis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imagined stories.

12. Sunyoung Park (박선영)

“Pisal”(2021)

“Tanya” (2021)

“Yerin”(2020)

“Harry&Seolkee” (2021)

“Gyomin”(2021)

항상 사람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 사진을 공부하게 된 이유도 인물사진을 촬영하고 싶어 시작한 것에 가깝다. 학부시절의 졸업전시에서는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초상사진을 걸었다. 유학생 작업은 스스로와 가장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찍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소소한 모험이었다. 유학생 작업을 마칠 때 즈음 왜 사람 사진에 매력을 느끼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길에 나가 사람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분명 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내가 어떠한 부류들을 찾아내어 촬영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내가 현재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건 내가 속해 있는 한국의 청춘과 이들의 문화, 이 두 가지라는 확신을 얻었고 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내가 정의한 한국의 청춘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춘들 또한 그 속도에 발맞추어 변모하고 있다. 나에게는 이러한 변화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들의 모습이 과거로 스쳐지나가지 않도록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포착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수많은 변화의 물결들 사이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나 스스로의 것을 만들어내고 싶기에 가장 명확한 단어이면서도 내 이름의 세 글자 중 하나인 “YOUNG”을 이 시리즈의 제목으로 고르게 되었다.

이 시리즈는 현재 진행 중으로, 빈티지샵 직원부터 DJ, 로리타, 타투이스트 등 내가 직접 마주한 한국의 청춘들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청춘들”은 객관적인 시선에서는 단순히 한국의

젊은이들로 보여지겠지만, 이들과 마주하며 보낸 시간들이 이들과 나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었다고 느꼈기에, 개인적 측면에서는 나의 친구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2020년 동대학원에 사진전공으로 입학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초상사진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로는 한국의 서브컬처와 청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사진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13. Junyeol Ryu (류준열)

“인터폰 호출기”(2020)

“비상조명등”(2020)

“115동”(2019)

“320동”(2019)

부재의 아카이브

내가 둔촌주공아파트를 알게 된 것은 2012년 고등학교를 단지 옆의 동북고등학교로 배정받으면서부터였다. 학교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는 2015년부터 이곳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2017년 둔촌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아파트가 위치한 둔촌 1동이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행정동이 되는 데에는 그로부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작업은 이주가 끝난 아파트의 풍경과 아파트에서 수집된 물품들로 나누어지는 두 갈래의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 속의 대상들은 대부분 나의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다. 이제 아파트는 완전히 철거되었고 남겨진 이미지들은 부재에 대한 기념비가 되었다. 나는 이것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내가 경험하지 못한 대상에 얹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엿보고자 한다.

The Archive of Absence

The first time I heard about Dunchon Jugong Apartments was in 2012 when I was assigned to go to Dongbuk High School located next to the apartment complex. The quickest way to get to school was to cut through the apartment complex which led me to begin documenting the place in 2015. This apartment complex obtained management disposal permission for reconstruction in 2017, and Dunchon 1-dong had less than one year to become an administrative district with the smallest population in Seoul.

This work consists of two types of images: scenes of apartments after all of the residents had left and pictures of objects that were gleaned from the apartments. The objects are mostly far away from my own experience. The apartments have since been completely torn down and these left behind images have become monuments in their absence. I try to lay out a variety of narratives about these objects I have never experienced through their intuitive reconstruction.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학과를 졸업했다. 사람보다는 그 주변에 집중하며 변해가는 도시와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작가상(2019)을 수상했다.

14. Yehun Shin (신예훈)

“Sarabande” (2021)

이 작품은 Prelude-Sarabande-Toccata로 구성된 작품 'Suite'의 두번째 부분이다. 피아노를 메인으로 하는 사운드아트작품으로 제작되었다. 본인의 작품활동 중 처음 발표된 작품으로 한국전자음악협회 FEST-M에서 연주되었다. 전시를 위하여 오디오비주얼작품으로 개작하였다.

Yehun Shin is Korean composer and media artist. He graduated University of Seoul, majoring in composition(B.Music) and currently at Hanyang university, majoring in composition of electro-acoustic(M.M). At NYCEMF, Korea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 FEST-M,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Daegu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Korean Composers Association Music Festival, Seoul Music Week and more, he performed. He supported by the Seoul and Bucheon Cultural Foundation. He won 2nd prize at 21c Korean music project 2020. He won 3rd prize at Pentaport Music Festival Youth Star 2021.

15. Song Chang Hoon (송창훈)

“Contradiction”(2021)

“Argument”(2021)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어도 의지랑 관계없이 생각과 감정들이 나를 찾아온다. 이러한 모순을 연구하고 싶었다.

서울에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16. Kichan Yang (양기찬)

“Cheap Spirits” (2020)

“Fleeting Horizon” (2020)

“The Flexible State” (2019)

나의 작업들은 위태롭고 빈약하다. 작업들을 구성하고 있는 오브제들은 스케일이 작거나 일회성 용도로 대량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작품의 물리적 성질이 변화되는 유한함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유약한 성질로 인하여 작품들은 사진과 같은 기록물로 남겨지거나, 기록물을 바탕으로 유사 오브제들이 다른 공간에서 과거 존재들의 자리를 계승하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이처럼 반영구적인 작품을 보존해주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 상충하며 연합하는 존재들, 이들의 규합을 상징화 하는 전시제도,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관객들이 호명하는 작품의 이름이다. 나는 시장의 체제와 개인의 의식이 오버랩 되는 지점에서 익명의 존재가 사회 속에 표출되거나 가려지는 양면의 현상을, 한시적인 소모품들이 쓰임에서 이탈 된 형태로 구현해 왔다. 이윤을 위해 규격화 된 시장의 제품들은 서로가 하나의 덩어리으로써 교차하면서 본래 용도로부터 어긋나고, 독립적으로 구분된 현상(phenomenon)으로 전환이 된다. 그 현상은 전시 기간 동안에 구축된 모습을 애써 유지하려고 하며, 사회가 분류한 정의(定義)대신 개인들의 의식 속에서 재사유가 되는 존재로 환원이 된다. 이 때문에 나의 작업들은 어떤 면에선 1:1 관계를 유도하기 때문에 은밀하기도, 어떨 땐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시장이라는 보호 구역 속에 한시적인 독자성을 확보하게 된다

Cheap Spirits

사진 속의 박스 테이프는 파쇄된 투명지들을 간신히 붙잡아 이질적인 덩어리로 전환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아래로 하나의 문구가 적혀있는데, 그 문구는 이념을 상실하거나 이념으로부터 배척된 이들의 잡당을 암시하는 표현이 기술되어 있다. “ 깃발이 그들을 얼굴을 잃었을 때, 사각지대의 저렴한 영혼들이 안개 이불 아래에서 산을 뒤집어 버렸다. (When the Flag lost their faces, Cheap Spirits from the blind side turned over the Mountain inside the mist- blanket)” ‘ Cheap Spirits’(2020)는 한시적인 상태를 이루고 있는 조각이 사진으로 기록된 작업이다. 청동이나 대리석등으로 만들어진 조각 기념물들과는 달리 한시적인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지도, 거대하지도 않다. 그 존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응집력을 잃게 되어 바닥의 부스러기로 와해될 수 밖에 없는 성질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유약한 조각물은 실제 스케일보다 부풀려진 모습으로, 현란해 보이려던 모습을 애써 보존해보고자 사진 속에 박제되어 스스로를 기념해보려고 한다.

Fleeting Horizon

작은 것로부터 숭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물이 달으면 녹아 없어지는 변기세정제들을 수평선으로 만들기 위해 특수 제작 프레임을 씌웠다. 작은 것들은 하나의 선으로 벽에 걸려져 있다. 하지만 정해진 틀 속에서 동일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생산되어진 다한들, 생산된 공장과 유통환경에 따라 각 변기세정제들의 수평선 무늬와 형태들은 조금씩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념적으로는, 또 원격에서 바라볼 때엔 푸른 수평선을 이루고 있지만, 그 실체는 작은 습도차로 인해서도 뒹굴 수 있는 변기 세정제들의 위태로운 집합이기도 하다.

The Flexible State

‘유연한 상태’(2019)는 구르는 성질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는 긴장감을 보이는 설치물이다. 공중으로 떠받쳐져 있는 당구공은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된 구르마들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중재하는 듯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각기 굴러갈 수 밖에 없는 대상들은 단 하나의 밴드로 간신히 엮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작품의 제목과는 다르게 이들의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선 특정 위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들 중 하나가 이탈하는 순간, 균형이 무너지면서 작품은 와해되고 수단으로써 제품들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볍고 유쾌한 오브제들의 균형 놀이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관계 속에 벌어지는 충돌과 단합 등, 서로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타자들의 서사를 유머러스 하게 대변해보고자 하였다